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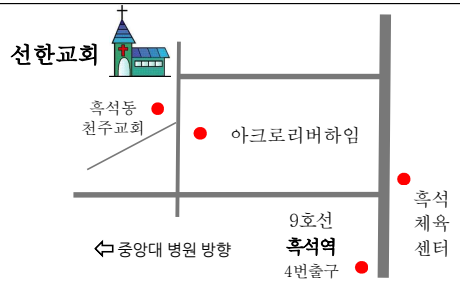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2:2)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 독 문	교독문 12 (시편 19편)
찬양과경배	151장 (통일찬송가 138장)
대표기도	윤호중 장로
말씀봉독	고린도전서 2장 1 ~ 9절
설 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임춘배 목사)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자의 처신 (잠18:1-24)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안내

이번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신청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중예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 4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일독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로나19 기도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시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활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시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정예배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새의 지략

찬송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통 217)

본문 :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기치 못한 압살롬의 역모 소식에 다윗은 수하 사람들과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안정적으로 쿠데타를 진행하던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지략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으나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의 지략은 놀랍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피난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와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를 결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압살롬에게 1만2000명으로 추격대를 만들어 다윗이 반격을 위한 진용을 갖추기 전에 먼저 기습해 승기를 확고히 하라고 권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탁월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새입니다. 압살롬은 후새의 전략도 듣길 원합니다. 후새는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그가 압살롬 곁에 있는 것은 압살롬 진영에 혼란을 주고 다윗 진영을 도우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후새는 아히도벨과 달리 기습을 반대합니다. 대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다윗 왕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 반격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후새는 만약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다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 강까지 끌고 가서 수장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풍기가 엄청나게 들어 있는 황당무계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후새의 말도 되지 않는 전략을 지지하는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14절)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좋은 지략이 좋은 결과를 맺고, 탁월한 전략이 탁월한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략도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탁월한 전략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거부하고 후새의 엉터리 지략을 수용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자의 모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거부하도록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다윗을 돕기 위한 후새의 지략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수용된 것처럼, 우리를 돕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지략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쁘게 수용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고전2:1-9)
서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론	**1. 바울의 결단** (1)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함(1절) (2)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함(2절) (3)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4절) **2. 교훈** (1) 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가? (2)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믿는가? (3) 나의 말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가?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결론	우리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

날짜 : 3월 29일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마태복음 26:69-75
말씀요약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으니 여종 두 명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도당이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며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곧 닭이 우니,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합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26:69-72 여러 사람의 추궁에 반박하던 베드로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을 저주한 후 통곡한 베드로 26:73-75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73절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마침내 베드로의 거짓 변명이 모든 사람 앞에 폭로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갈릴리 억약과 사투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친 불리함을 피하고자 하는 거짓 변명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길에는 항상 불리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시할 때 어디서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베드로를 덮쳤던 두려움이 제게도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너머 부활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제 시선도 따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은혜의 손으로 덮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개인성경공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찬양과 기도	갈보리산 위에 (새 150)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황제펭귄(Emperor Penguin)은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 양육하는 유일한 동물인데,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 희생을 합니다. 오직 알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 단식을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비축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면 수컷이 발 위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넣고 품기 시작합니다. 부화할 때까지 보통 2~4개월 동안 수분 섭취를 위해 눈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부화 기간 64일 동안 온갖 어려운 환경을 이겨 냅니다. 영하 60도 얼음 바닥 위에서 눈보라를 견디며 알을 품습니다. 때로는 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다가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 알이 부화하면 수컷 펭귄은 자신의 위 속에 저장해 놓았던 '펭귄밀크'라는 먹이를 토해내 새끼에게 먹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떠난 암컷 펭귄이 돌아오면 수컷 펭귄은 새끼를 맡기고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펭귄이 알을 지키고 부화시키며 양육할 때까지의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희생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7:27~44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음을 입은 성도는 그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희롱했나요?(27~31절)
적용하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육체적·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닥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죄 사함의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 아들	날짜 : 4월 2일
찬양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본문	마태복음 27:45-56	
말씀요약	어둠이 제육시부터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후 돌아가십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과 백부장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의 죽으심 27:45-53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값진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미련 없이 끊어 버릴 죄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백부장의 고백 27:54-56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을 본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두려움에 머무는 것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54절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누미노제(Numinose, 거룩의 체험)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참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과 대조됩니다. 혈통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참혹한 십자가에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제 죄를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매일 Q.T.	회개에 이르지 못한 후회, 이를 통한 말씀의 성취	날짜 : 3월 30일
찬양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본문	마태복음 27:1-10	
말씀요약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가 예수님을 죽이려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고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핏값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며, 그 돈으로 밭을 사 나그네의 묘지 삼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유다의 잘못된 선택 27:1-5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후회하며 한 말은 무엇인가요? 후회에만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은 30과 토기장이의 밭 가룟 유다의 돈을 왜 성전고에 두지 않았나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조차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1절 산헤드린 공회는 ‘새벽에’ 모여 예수님 죽일 방도를 논의합니다. 사형 권한이 없던 그들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사형하려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최대한 서두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법성을 고발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가장 간교하고 악랄한 불법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공회의 졸속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불법과 불의,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후회에 그치지 않고 돌이켜 십자가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저버린 저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죄책감의 올무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매일 Q.T.	의로운 왕을 십자가에 넘긴 무책임한 결정	날짜 : 3월 31일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마태복음 27:11-26
말씀요약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그 말이 옳다 하시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대로 사면할 죄수를 묻자,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빌라도는 민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묵상질문 1	바라바냐 예수냐 27:11-19 왕이신 예수님이 고발과 심문에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발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사실은 내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묵상질문 2	대적들의 삼박자 화합 27:20-26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후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는 다수의 소리에 흔들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나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14,17절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며, 어떤 사본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로 기록합니다. 이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폭력을 통해 구원과 해방을 이루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도 조용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양 같은 구원자십니다(사 53:7). 구원은 결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는 감각을 주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저를 주장하소서.

매일 Q.T.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날짜 : 4월 1일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본문	마태복음 27:27-44
말씀요약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후 그분을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 패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며 조롱합니다.
묵상질문 1	로마 군인들의 조롱 27:27-31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한 물품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힘이 있지만 자기방어를 하시지 않은 예수님의 본을 어떻게 따를까요?
묵상질문 2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7:32-4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말로 희롱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괴로운 상황에서 나의 말과 행실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40절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합니다(4:3).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지나가는 자들이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비웃는 세상에서 때론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게 하소서.